



판매량 4만대 육박 · 전년동기비 20% 성장

PDA 시장이 부활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 PDA 내수시장은 4만대에 근접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용 시장은 네스팟 물량과 내비게이션 전용단말기 수요가 시장을 견인했고, 산업용 시장도 물류와 교육 및 방문판매 등 공급선이 늘어나 전체시장 확대에 일조했다.

모바일타임스 | 최광렬 기자

개인시장 '네스팟' 이 주도

개인시장은 전분기에 이어 네스팟 사업이 주도했다. 한국 HP가 지난해 말부터 KT 물량을 선점한 가운데 싸이버뱅크가 KTF에 네스팟 전용단말기를 공급하고 있어 최근 삼성전자도 네스팟 전용폰을 출시해 분할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러나 싸이버뱅크와 한국HP가 개인 및 기업용 시장에서 물량을 늘려간 반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매출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전체판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실적을 살펴보면 싸이버뱅크는 SK텔레콤에 공급

주요 PDA업체별 1분기 실적

구 분	2004년 1분기	2005년 1분기
싸이버뱅크	7000대	1만5000대
삼성전자	5000~7000대	N/A
한국HP	7000대 내외	2만2000대
모바일컴피아	2500대	5000대
블루버드소프트	5000대	2000대

※출처: 각 사 발표

중인 내비게이션 전용 PDA(모델명: POZ X310)과 KTF 네스팟 PDA(모델명: POZ X301)이 월 4000대 정도 팔렸고 수출도 이스라엘 엑셀텔레콤을 통해 초도 물량 1000대를 납품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대가 증가한 1만5000대를 공급했고 지난 3월에 세계최초로 선보인 위성DMB 스마트폰(모델명: POZ B300)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싸이버뱅크 이승현 이사는 “고정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내수에 이어 수출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며 “인증작업을 마친 중국과 브라질에 본격적인 수주가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HP는 네스팟 전용단말기 iPAQ rw6100' 과 iPAQ hx2000 시리즈 등 모델별로 판매가 꾸준히 이어져 업계 1위로 부상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 출시한 iPAQ rw6100' 는 누적 5만대를 판매해 무선랜 효과를 톡톡히 챙겼다.

대학들에 3000대 공급을 비롯해 각종 기업 솔루션 시장에 20% 정도를 납품했고 지난 2월, iPAQ hx2000 시리즈 신규 출시로 GPS 솔루션 패키지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1분기 판매량은 네스팟 모델과 아이팩 시리즈를 합쳐 2만2000대로 집계됐다.

한국HP 송재원 과장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네스팟 전용 단말기와 기존 아이팩 시리즈 점유율이 오

히려 늘어났다”며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는 음성과 데이터가 복합된 무선랜 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휴대폰과 PDA를 결합한 본격 스마트폰 미츠(MITs) 후속 모델 'M500' 으로 반전을 노렸지만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된 카메라폰에 밀려 별다른 성과를 기록하지 못했다. 스마트폰 판매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5000대 미만이거나 2000~3000대 수준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산업용 ‘모바일컴피어 Vs 블루버드소프트’

지난해 8만대 규모를 기록한 산업용 시장은 올해 최소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바일컴피어와 블루버드소프트 양자 구도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부터 식음료, 방문판매 시장에 PDA 도입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나 시장특성상 수주량이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 1분기 전체물량은 1만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바일컴피어는 지난해 납품했던 웅진코웨이에 3500대를 추가로 공급했고 C&M, 서울도시가스 검침용,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CJ GLS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물량을 이어갔다. 또한 중국시장에 경찰용 모델로 'M3' 제품 50대가 샘플로 판매돼 테스트를 거치고 있고 현지 대형 SI업체 3개를 대상으로 막바지 공급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 3월 세빛 전시회에 'M3'를 선보여 독일, 이태리, 터키 등에 있는 50여개 판매대리점에 6월쯤 선적을 예상하고 있다.

블루버드소프트도 KT와 에버랜드에 각각 700대, 1000대를 수주했고 세이브존의 납품으로 국내 백화점 모바일 POS의 80% 도입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에버랜드에는 국내 최초 실외 모바일 POS를 공급했고 B/S팀 (Before Service Team)과 A/S팀으로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 전국 5개 서비스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수출로는 미국 최대 화장품 통신판매 기업인 에이본(Avon)사에 재고관리 용을 납품한 데 이어 유럽시장은 하이엔드 제품 위주로 진출할 계획이다.

블루버드소프트 이광혁 대리는 “유럽시장은 일체형 단말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저가모델보다는 고기능의 제품으로 파고들 방침”이라며 “미주,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및 호주 등 해외진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텔리틱도 그간 부진했던 신제품 출시를 강화해 대리점 체계와 민간기업 수주에 집중하고 있으나 공급량은 1000

대신 삼성전자는 3월말 무선랜을 내장한 뮤직폰을 출시해 다시 한번 스마트폰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최초로 'SRS' 기능을 지원하여 3D 입체음향을 구현, 휴대폰 뒷면에 17파이 듀얼 스피커를 탑재해 음향의 질을 강화했으며, 실시간 TV 시청, 모바일 블로그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TF를 통해 네스팟 전용단말기로 우선 공급됐다.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무선랜 기능을 제공받지 못하고 단말기 크기 역시 2.8인치로 휴대성에는 제약이 있어 판매부진에 시달렸던 미츠 시리즈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저가형 내비게이션 단말기에 집중하고 있는 대만의 마이텍은 LG상사와의 국내 판권계약으로 여전히 분기 평균 7000~8000대를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 미만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해외 대규모 입찰과 브랜드 이미지를 도모해 수출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

이밖에도 싸이버뱅크는 소량이지만 '트리톤' 시리즈로 군사용 단말기를 포함한 우체국, 국세청 등 공공부문을 타진하고 있고 인포부드도 유통 및 중대형 SI업체를 대상으로 결제단말기 보급에 나서고 주력하고 있다.

컨버전스 추세 두드러져

1분기 PDA시장은 물량면에서 보합수준에 그쳤으나 개인 및 산업용시장 구분 없이 컨버전스 추세가 두드러졌다. 개인 시장이 무선랜을 지원하는 유·무선 복합형 제품에 이어 DMB스마트폰을 선보였고 기업용 시장도 사용자의 이동성과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강화한 고가 모델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먼저 싸이버뱅크는 지난 8일 세계 최초로 위성 DMB 스마트폰 '포즈 B300'을 개발하고 '세빗' 전시회를 통해 해외에서 먼저 공개했다. 이번에 개발한 '포즈B300'은 경쟁 제품과 동일한 외형크기를 가지면서도 스마트폰 메모리로서는 최대인 640MB 메모리(램 128MB, 낸드플래시 512MB) 탑재해 고화질의 위성DMB 방송을 빠른 처리속도로 감상할 수 있다.

블루버드소프트는 산업용 PDA 업체로는 이례적으로

200만화소 카메라를 지원하는 최소형 단말기 'BIP-5000', 'BM-100'을 출시했다. 그 동안 싸이버뱅크, 한국HP 등 개인용 PDA업체들이 130만화소 카메라를 탑재한 단말기를 선보인 적은 있지만 200만화소 카메라를 내장한 것은 이번 제품이 처음.

기존 기업용PDA가 CDMA 단일 통신방식으로 통신비용 부담이 높았던 점을 개선해 무선랜을 동시에 지원해 비용부담을 줄였고 200만화소 카메라와 바코드스캐너 키패드 등 주요 기능을 일체 시킨 것이 특징이다. 블루버드소프트는 또한 위성 DMB 및 와이브로 단말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서비스 시점에 맞춰 전용단말기를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모바일컴피아도 위성DMB와 내비게이션을 결합한 차량용 단말기를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져 하반기에는 컨버전스 PDA폰이 다수 쏟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제품이 주요 기능면에서 휴대폰과 중복돼 킬러 애플리케이션 확보여부에 따라 실제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일부 스마트폰이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동사업자의 마케팅 부족과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차별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휴대폰과의 정면 대결이 아닌 틈새시장에 승부를 걸고 있다"며 "DMB, RFID 등 차세대 기술이 컨버전스 속도를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KB**